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www.seongnamdiary.com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발행처 성남시
편집처 공보관
주 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우편구독 신청 031-729-2078

KOR 성 남 시 WWW.SEONGNAM.GO.KR

01 JANUARY 2018

비전성남

2017년 12월 25일 통권 제270호



남한산성 제3옹성 성곽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2016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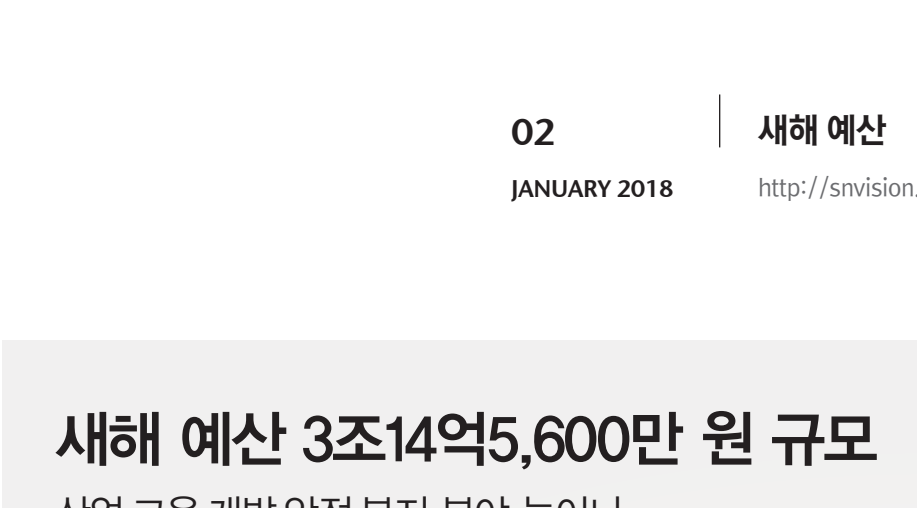
새해 예산 3조14억5,600만 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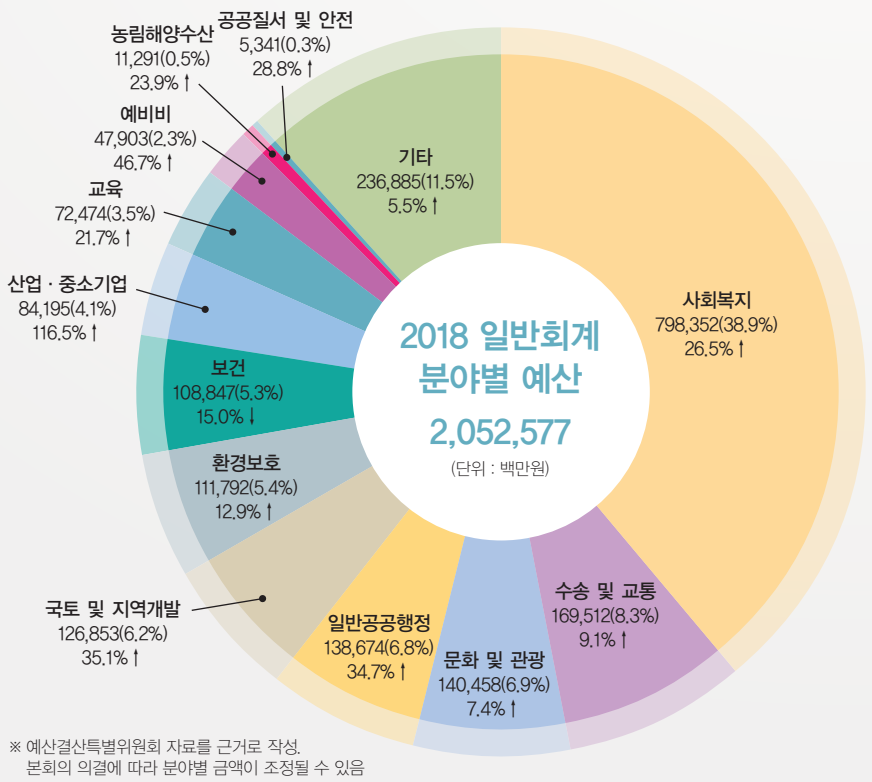
산업·교육·개발·안전·복지 분야 늘어나

성남시 2018년도 살림살이는 3조14억5,600만 원 규모다.
2017년도 예산 2조6,250억6,800만 원보다 14.3%(3,763억8,8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조525억7,700만 원과 특별회계 9,488억7,9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새해에는 청년배당, 도시재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전년 대비, 산업·중소기업 분야 116.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1%, 일반공공행정 분야 34.7%, 교육 분야가 21.7% 늘어났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8.8%, 사회복지 분야도 26.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중 가장 많은 7,984억 원(38.9%)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한다. 청년배당 109억 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 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 50억 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 원 등이다.
교육 분야에는 725억 원(3.5%)을 투입,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15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110억 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5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42억 원(4.1%)을 편성,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190억 원),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109억 원) 등에 쓴다.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 소일거리(38억 원), 성남형일자리(13억 원), 공공근로(33억 원) 사업을, 도시재생을 위해 일반지역 재생사업(27억 원),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23억 원), 기타 도시재생사업(70억 원)을 추진한다.

예산법무과 예산팀 031-729-2342

2018 예산 규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작성.
본회의 의결에 따라 분야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하대원공설시장 12월 영업 시작

성남시 유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해 시민 만나

성남시 유일한 도매시장인 하대원공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완료하고 12월 16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하대원공설시장(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18)은 지은 지 26년으로 노후화돼 가설 건축물(7개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건립됐다.
가동은 건축면적 1,137㎡(연면적 1,757㎡), 나동은 건축면적 855㎡(연면적 1,273㎡) 규모다.
건물 1층은 70개 점포가 입점하고 2층은 휴게실과 회의실, 관리사무실, 상인회,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류·조달기능을 갖춘 도소매 전문시장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7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한다.
전병칠 상인회장은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을 보면 안쓰러웠는데, 이렇게 쾌적한 영업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상권활성화재단과 적극 협조해 경기 동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2



겨울철, 건강하게 보내요

한파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건강관리는

- 심장과 혈관·호흡기·신경 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은 난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 한파 시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라디오, 온열기 등을 준비하고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합시다.

수도계량기·수도관 관리는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 관리는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전기사용 때는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 고장 시 즉시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 조작하지 맙시다.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멋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가스시설 관리는

- 가스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는 행위는 금지합시다.
- 가스보일러 사용 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 확인합시다.
- 비눗물 등으로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성남시 깃대종 선정… 지역 야생생물로 보존

버들치·파파리반딧불이·청딱따구리 3종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


▲청딱따구리

성남시는 청딱따구리,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 3종을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 '깃대종'으로 선정했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이다. 잘 보존된 깃대종은 주변 자연 생태계 건강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성남시 깃대종 중 하나인 버들치는 가장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사는 토종물고기다. 성남 탄천 합류부와 운중천, 금토천 등 지류에서 주로 발견된다.
파파리반딧불이는 '개똥벌레'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환경지표 곤충이다. 6~7월 늦은 밤에 금토동, 갈현동, 야탑동, 율동, 창곡동 일원에서 관찰할 수 있다. 배에 있는 발광 세포에서 형광 연두색의 강한 점멸광을 낸다. 국내 서식하는 반딧불이 가운데 발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청딱따구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다. 성남 전역의 공원과 야산의 참나무류에 이들이 파놓은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시는 내년 4월부터 15개월간 청딱따구리·버들치·파파리반딧불이의 서식지와 개체 수를 상세 조사해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관심을 높여 깃대종과 서식지를 가꿔 나갈 방침이다.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031-729-3152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 다시 시작

시공사 삼환기업, 공사 재개 허가받아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가 12월 11일 다시 시작됐다.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10월 13일 건립 공사가 중단된 지 60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삼환기업의 계속 공사 이행 신청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12.11)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은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 현장에 근로자 투입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공사는 다시 시작됐지만, 애초 예정대로 내년 4월 말 성남시의료원 준공과 개원 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두 달여 공사 중단으로 빚어진 골조·수장·배관·배선 공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부진 공정을 만회해야 하고, 미뤄진 기성 공사 대금 지급, 공간 세부변경 등의 설계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에 시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시행해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이다.
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청 부지 2만4,711㎡에 연면적 8만5,091㎡,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24개 진료과목에 513병상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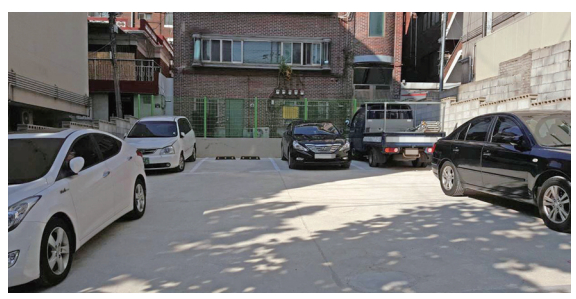

▲12월 7일 현재 성남시의료원(이재철 부시장 현장 방문 때)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원건립팀 031-729-3645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 푼다

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을 풀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12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에 대해 내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 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 차량 8만3,377대에 주차면 5만7,951개 ▲중원구, 차량 8만7,003대에 주차면 7만2,338개 ▲분당구, 차량 19만6,268대에 주차면 28만4,215개 등이다.


▲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조성한 주차장(태평1동 5611-1)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031-729-3682

2018 무술년(戊戌年),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다.'
잭 니콜슨·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 리스트〉 속 메시지처럼 버킷리스트(bucket list)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가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리스트다.
2018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개띠 해에 태어난 성남시민들의
새해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들어 보자.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서동미 기자 ebu73@hanmail.net



엄마랑 1박 2일 여행 갈래요, 꼭!

지난해에 엄마랑 단둘이 처음 간 여행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 번씩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엄마와 함께 인터넷을 검색해 여행지를 정하려고요.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레요. 그 다음은 추리소설가인 나의 꿈을 위해 일주일에 한 권씩 고전을 읽을 것. 'B사감과 러브레터' 같은 단편부터 시작할래요. 이 버킷리스트를 잘 지키면 사무엘(Samuel,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 네 번째 소원은 엄마가 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성조가 있어서 그런지 참 재미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키 크기. 줄넘기 열심히 해서 올해 목표 165cm를 꼭 달성할 거예요. 파이팅~!



새로운 문화 만나고 싶어

나 홀로 떠나는 유럽여행. 유럽여행을 목적으로 들었던 적금이 만기가 돼요. '수고했어!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경험하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취미활동시간도 갖고 싶어요. 여행동아리, 영어스터디 모임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토익시험 도전! 호주에서 2년 정도 생활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영어 점수가 없어요. 새해는 제가 청년배당을 받는 해인데,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원받으면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쓸 거예요. 입사 1년도 채 되지 않아 운 좋게 승진했어요. 그 힘을 받아 2018년에도 노력해서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주도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기

36년의 인생에서 유독 다사다난했던 2017년! 2018 무술년을 맞이하며 힘들었던 것들은 털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즐겁고, 더 의미 있게 지내자고 다짐합니다.
성남시에서 살아온 30년. 30년 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를 누린 성남시. 앞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성남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복지정책과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공원이나 여러 근린시설 등 도시정비를 적절하게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미혼여성과 결혼 전 직장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공형 주택사업 실시도 희망합니다.
바라는 것만 많은 시민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저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곧 반 백 살, 건강하기

오십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건강하기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족한 나의 근력 2% 늘리기. 배드민턴을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나의 일 찾기. 20년 넘게 일해도, 자식이 대학에 가도 우리의 노년은 우리의 책임인 시대에 다시 활기를 얻을 일을 찾아야겠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께 다정한 말 한 마디 하기. 죽어라 키워도 죽어라 걱정인 게 자식이라는 것, 제가 부모가 돼 보니 알겠습니다. 닭살 멘트는 못하겠지만 새해엔 부모님께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네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거예요.
네 번째, 친구랑 부산여행 가기. 회사 다니면 바빠서, 애 키우느라, 놀 때는 돈 없어서, 그러다 보면 힘없어 못가는 신세가 될 테니 유럽여행까지 거창한 건 아니라도 친구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마지막 하나는 사랑해보기. 뭐든 누구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마주하는 것들을 사랑해보기.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하늘 갈 나이가 될지도 모를 테니까요.

Bucket list



성남형 복지가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제일 먼저 소망하는 일은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2018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개인적인 소망은 수상스포츠 도전입니다. 스킨스쿠버나 서핑으로 바다를 누비는 꿈을 꿉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성남은 복지가 참 잘돼 있지?"라고 묻습니다. 성남이 복지의 메카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고교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산이나 용인 등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정책이 원조인 성남에서는 왜 안 되는지 속상하네요. 2018년엔 성남시 고등학생들도 무상교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화합하길 바랍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회사가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식 둘을 다 출가시켰는데 결혼한 딸이 맞벌이를 해 손녀를 돌봐 주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첫 손주입니다. 소중한 첫 손녀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올 한 해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겠지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편안하니까요.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북핵문제가 해결돼서 경제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하지 못했던 등산, 자전거와 같은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봄에 제주도를 자전거로 돌아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일하고 있는 회사가 휴가를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더 탄탄해지는 걸로 해야겠네요.



손주들의 건강과 소일거리 기대

아들 둘을 다 키운 큰딸이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워낙 정이 많은 예쁜 딸입니다. 입양 가정을 찾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위탁모를 하면서 눈에 밟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입양하기 시작해 손주가 모두 다섯이 됐네요. 그 아이들이 올 한 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놓은 노인일자리에 선정돼 적당한 소일거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쿠아로빅을 꾸준히 다녀 체력도 유지해야 되겠고요, 같이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올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의 여행은 정말 최고입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길…

어깨와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재활을 위해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느낀 것은 운동하는 분들은 참 젊다는 거예요.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도 저축입니다. 40대 건강이 50대로, 50대 건강이 60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일본에는 85세 치어리더, 100세 육상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운동하는 것을 가족 목표로 정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걱정이 없으니 더 부지런히 운동하려고 합니다. 또 새해에는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 모두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

나쁜 기운 막아 주는 무술년 한 해를 기원하며

2018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무술년(戊戌年)이다. '무(戊)'는 음양오행에서 흙에 속하는데 흙색을 누런색, 즉 황금색이라 하여 2018년 새해를 황금개띠 해라고 한다.

'개'라는 말은 개가 짖는 소리에서 비롯됐고, 한자에서는 개를 크기에 따라 견(犬)은 큰 개를, 구(狗)는 작은 개를 가리킨다. 목축이 시작된 신석기시대에 사람들은 늑대를 붙잡아 개로 키우면서 개는 문지기 구실을 하고 사냥에 따라다녔다. 개는 냄새를 잘 맡고 소리도 빠르고 정확하게 느끼다 보니 인간이 사냥하는 데 훌륭한 보조역할을 했다.



인간과 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 기대어 살아온 것은 개의 성질과 관련 있다. 개는 떼를 지어 살았으며 무리의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명령에 잘 따랐다.

주인을 지키는 개의 충성심은 '지킴'의 상징이 됐다. 개는 재물이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나쁜 기운이나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지켜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신라시대의 뿔잔 중에는 개 모양을 장식한 뿔잔이 있는데, 이는 인간을 지켜 주는 개를 신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털이 긴 개를 귀신을 쫓고 행운을 주는 개라 하여 돈으로 사고팔지 않고 선물로만 주고받는다고 한다.

조선시대 민화 속에서 개는 나무 근처에서 늘어진 자세 또는 누워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나무 수(樹) 자와 지킬 수(守) 자는 발음이 같은데 개 술(戌) 자도 '수'와 소리가 비슷하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와 개를 함께 그림으로써 불행한 일로부터 '지킴'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무술년에는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고구려 부활을 꿈꾼 발해가 698년 무술년에 건국됐다. 1598년 무술년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 나라의 근심이 사라진 해였다.

2018년 무술년은 충성스럽고 나쁜 기운을 막아 주며 행운을 가져다 주는 개의 기운을 받아, 하는 일에 충실하고 나라 안팎의 묵은 고민이 사라지는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누구나 건강한 STAR City를 꿈꾸며



이원재 |
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대한보건협회 경기지부장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희망이다. 한국인의 건강은 짧은 기간에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반쪽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대여명(막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2016년 여자 85.4년, 남자 79.3년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길어졌다. 그러나 병을 앓으면서 지내는 기간(남자 10.5년, 여자 17년)이 길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대수명(전체 68.5년, 남자 68.8년, 여자 68.4년)은 OECD 국가 중 짧은 편이다.

또한 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는 좋다고 할 수만은 없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다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며 사회의 모든 부문이 건강을 위해 협력하고, 도시의 모든 정책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온 도시가 협력해 도시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부족한 휴식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편히 쉬면서 보낼 수 있는 곳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쉬면서도 창의와 혁신을 이뤄낸다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경쟁이 심하고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주차문제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일을 벌이기도 한다. 마을에서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나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사회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 함께 도와야 한다. 성남시는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저렴한 협동주택, 공동육아, 육아휴직, 보육 도우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연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매연과 미세먼지가 적은 뒷길에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조성해야 한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과도한 학업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하다. 학교의 점심시간을 약간 연장해 주고 배식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뛰어놀 시간을 늘려 주며,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신체활동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전 과정에서 위생적이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남시에서 제공되는 식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명성을 얻고 지역경제도 발전하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남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건강의 이상향이 되는 꿈을 가져 본다. STAR(Social, Technological, Artistic, Reviving) City Seongnam!

전통이란 지금부터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금난새 |
성남시립예술단
상임지휘자 및
예술총감독

외국의 연주자가 와서 웅장한 홀에서 연주를 해야 진정한 클래식이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클래식계에는 변화가 필요했다. 청소년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음악에 해설을 곁들였고, 딱딱한 제목도 친근감 있게 달았다. 스스로 표를 사서 공연을 보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부담스럽지 않은 입장료도 받았다.

이렇게 탄생한 〈금난새와 함께하는 세계음악여행〉은 6년 연속 전석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클래식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클래식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 안 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성남뮤직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모란시장, 판교 유스페이스, 시청 너른못 광장, 위례신도시 등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콘서트홀을 떠나 성남의 곳곳을 돌며 연주했다. 음악이 좋으면 야외도 훌륭한 문화공간이 된다. 심지어 연습실에서도 테마가 있는 작은 하우스콘서트를 열고, 정기연주회 전날 리허설에 학생들을 초청해 리허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올해 연주회에는 차이코프스키를 심포니별로 묶어 연주한다거나 한 나라의 음악가들을 같은 연주회에 아우르는 구상을 해본다. 음악을 색깔별로 세팅해 보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청중에 맞는 클래식을 찾으려 한다. 전통이란 지금부터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잘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1등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바꿔 보자. 음악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이다. 나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좋은 연주로 다시 돌려주라고 한다.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중이 그 연주를 들었을 때 행복해하면 그들은 최고의 연주자인 것이다.

2018년 한 해, 우리 오케스트라로 인해 성남이 더 좋은 도시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성남에 오케스트라가 있어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2018 무술년 성남 학습시민들의 행복한 동행



최운실 |
아주대 교수
대한민국평생교육진흥재단 대표

바야흐로 학습도시 성남은 지금 목하 '공부' 중이다. '학습 엔진' 소리가 공감과 공유, 그리고 공생의 학습도시 성남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학습을 매개로 도시 전체를 세계적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가 배우는 학습도시 성남시민들의 행복한 '학습 동행'은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한다.

그래서인가. '성남의 시민'들은 행복하다. 학습이라는, 인류에게 남겨진 유일한 '보물'을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100번째로 학습도시가 된 성남은 시민 맞춤형 행복학습센터로 명성이 자자하다. 성남의 물샐 틈 없는 행복학습센터에서는 오늘도 배움으로 행복한 시민들의 웃음소리와 배움을 향한 식지 않는 열정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행복학습센터에서는 팔순을 넘기신 '늦깎이 학생' 어르신들의 책 읽는 소리, 공부하는 소리와 파안대소 웃음소리가 활기차게 넘쳐난다.

2018 무술년을 맞으며 우리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어 5차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직감한다. 모든 것이 스마트한 '똑똑한 세상'이 오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1과 알파고2와 인간 기사들의 대국을 통해 이미 직감하고 있듯이,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들의 진화가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른 듯하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와 앨빈 토플러,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광속의 사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놀랍게도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법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아닌 바로 자신들, 즉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인 다보스 포럼의 인공지능 AI 세션에서는 길고 긴 논의 끝에 마지막 날 '어떠한 인간도 기계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기계도 그를 가진, 그를 만들어 낸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 모두가 '와우, 인간 만세'를 외쳤다. 이렇듯 미래 사회 역시 답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해답을 '공부'에서 찾고 있다. 삶의 답을 '공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이라는 새로운 전환의 기점을 맞고 있는 지금, 시대를 앞서 가는 선도형 '학습도시 성남의 신화'가 새해에도 승승장구 이어지길 기대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한학습으로 내일의 희망 성남을 일구는 행복한 학습 파이오니어들이 되길 기대한다. '배워서 남 주자'는 기치로 학습결과를 재능나눔으로 공유하려는 사람들, 시민강사, 마을 선생, 행복학습매니저, 학습코치가 돼 나눔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들이 일구어 내는 내일의 성남이 기대된다.

이 추운 겨울날 새벽공기를 가르며 배움을 전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학습산파'들의 숨가쁜 발걸음이 반갑다. 학습으로 '공감'하고 배움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도시의 초석이 마련되는 '공생사회'를 향한 성남의 도전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한다. 철학이 있는, 이유가 있는 '존재의 학습도시 성남'의 시민들이 자랑스럽다. 무술년 새해가 더욱 기대된다.

2018 opinion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성남의 미래를 그려 본다



김광희 |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성남시가 한국외국어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와 한국경제신문이 매년 실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75개 기초시 중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벤처기업이 1,340개로 기초도시 중 1위이며, 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5위로 가히 광역도시 수준이다. 신설법인수의 증가도 현격하다. 특히 ICT분야의 창업이 많다. 연구원, 과학자, 경영자, 작가 등 전문가그룹, 소위 창조계층 비율이 30.3%로 전국 1위이며, 오슬로, 시드니, 암스테르담 등 세계 주요 도시 순위에서도 34위 수준이다.

민선 5·6기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 등 성남시 공공기관의 노고가 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 성남시민의 일원임이 뿌듯하다. 이제 중앙정부도 판교테크노밸리를 더욱 확대해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판교를 국가 차원의 창업생태계 모델로 선양할 계획이다.

좋은 인프라와 환경으로 기업이 몰리고, 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거리가 융성해져 가게가 잘 되고 거주민의 소득도 늘게 된다. 새로운 문화도 창출된다. 경기둔화와 인구정체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의 많은 지자체들이 선망하는 구조다. 판교테크노밸리가 머지않아 실리콘밸리, 베를린 아들러스호프, 런던 테크시티, 베이징 중관춘 등과 같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기업의 역동성과 공공부문의 의지, 성남의 자연·인적 자산 등이 융합해 구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시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신시가지와 본시가지와의 불균형 문제다. 소득격차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구촌 모든 국가의 당면한 숙제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 육성, 삶의 질 100대 도시 목표설정 등 성남시가 각별히 노력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본시가지 지역의 활성화는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려 명품 장인클러스터로 키우면 어떨까 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명품을 찾기 마련이다. 숨은 장인을 발굴, 육성해 성남 마이스터 자격을 부여하고, 문화의 장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시가지의 4차 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역을 돌아, 명품 장인거리에서 고품격의 한국문화를 감상하고, 남한산성에 올라 정월 달맞이를 구경하는 성남을 그려 본다.

성남시청 이곳!

출범 100일 지난 성남시 관광과

Welcome to 성남! 성남에서 관광하세요

성남시 관광과가 9월 1일 출범했다.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 생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탄생한 관광과는 무슨 일을 할까? 출범 100일이 지난 그곳을 찾아봤다.

성남시에는 ▲2016년 말 기준 총 매출액 77조 원, 국내 3위 규모로 성장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을 육성할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IT·BT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단지가 포진하고 있다.

또 의료클러스터를 비롯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희망대공원, 율동공원, 탄천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 자원 ▲수내동가옥, 봉국사 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성남만의 관광브랜드 만든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광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과가 출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지역축하행사, 성남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정자동 카페문화거리 경관조성, 신해철 대중문화예술공간 관광명소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는 12월부터 눈썰매와 따끈한 군고구마 체험 등 재미있고 신나는 겨울여행이 되도록 겨울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점 하나하나가 이국적인 명소로 아름답게 조성된 정자동 카페거리에 최신식 가로등을 교체해 이색적인 테마가 있는 야경 경관을 만들고 있다.

'마왕' 故 신해철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수내동 주택과 주변거리는 성남시 대표 대중문화예술공간으로 관광명소화한다. 12월 준공되면 내년 그곳에서 버스킹 공연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만날 수 있다. 판교역과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건축물, 주변 생태환경을 관광콘텐츠로 활용, 이야기가 있는 관광코스도 선보인다.

생활관광, 의료관광 시장 확대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의)메디피움의원 등 관내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박람회에 참가해 의료 상담을 실시했다.

12월 12일에는 방한 의료관광 성장국가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성남시의료관광 홍보센터를 열고 몽골 한인회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협약을 체결, 몽골 환자유치를 본격화했다.



◀성남시의료관광 울란바토르 홍보센터 현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 성남 부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청도시, 위해시, 정주시 등 해외 홍보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 홍보기반을 마련한다"며 "성남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 쇼핑 등 의료관광 멤버십을 확대해 체류형 성남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성화봉송 행사 성공개최 기원 지역축하공연 개최

- **일시** : 2018. 1. 8(월) 17:30
- **장소** : 분당 중앙공원(관리사무소 앞 광장)
- **출연** : 가수 소찬휘, 광개토 사물놀이단, 성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광과 관광정책팀 031-729-2992
서동미 기자 ebu73@hanmail.net

성남시민농원(실버텃밭) 분양 신청하세요

성남시농업기술센터는 중원구 성남동 4827번지 일원 시유지(피크닉공원 예정부지)에 친환경 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해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분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1월 19일(금)
- **위치** : 성남시민농원(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827번지 일원)
- **분양구좌** : 2,500구좌 내외
- **분양면적** : 12㎡ 내외
- **분양가격** : 무료
- **신청대상** : **성남시민**으로 2018년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시민 **1가구 1구좌 신청**
  ※ 타인명의 신청, 이중 신청, 1가구 2구좌 신청 시 모든 구좌 자격 취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agri.seongnam.go.kr 접속 → 커뮤니티 → 실버텃밭 접수)
- **선정방법** : 모집인원 초과 시 컴퓨터 추첨
- **사용기간** : 4월 중순 ~ 11월
- **확정자발표** : 2018년 2월 2일(성남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문의** :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팀 031-729-4021~3

성남시 시정과 민원이 궁금하시죠?

성남시 콜센터는

- 성남시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담사가 듣고 안내·접수해드리는 성남시 종합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 평일 08:30 ~ 18:30

전화·문자 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77-3100번
- 한 번호로 전화·문자 서비스 가능

1577·310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주요 상담업무

- **여권** 여권 신청방법, 절차, 필요서류 등 안내
- **차량등록** 신규·이전·말소등록, 번호판 재교부 등 차량등록업무 안내
- **상하수도요금·지방세** 요금조회 및 가상계좌 안내
- **복지** 일자리, 주거, 보육 등 복지서비스 안내
- **각종 성남시책 안내** 성남시 각종 정책 및 행사 안내
- **불편신고 접수** 생활, 교통 등 각종 불편신고 접수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실 이용하세요

부부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을 한다. 전화상담(031-755-9338)은 월~금요일 오후 1~6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에 진행한다. 사이버상담은 센터 홈페이지(www.family.go.kr)에 접속해서 사업안내 → 가족상담사업 → '사이버상담' 게시판에 등록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 031-755-9327(내선 1번)

워킹맘·워킹대디의 직장생활 지원 - 직장 고충상담

매주 화요일 오후 6~9시 성남시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내 상담실에서 부당해고, 퇴직금,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개인상담)을 한다.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직장 근로자(자녀 동반 불가)는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화~금요일 오후 1~9시 전화로 접수한다.

센터 워킹맘워킹대디지원팀 031-754-9327

※ 모든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go.kr)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신청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8년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성남시 육아 지원 아이사랑놀이터 장남감도서관에서 2018년 회원을 12회에 걸쳐 모집한다(표 참조). 모집대상은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과 성남시 재직자(2018.1.1. 기준)로 한 가정 당 한 지점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회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제로 하며, 대여시작일로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차시	신청기간	추첨일	등록기간	대여시작일	지점명	추첨인원
1차	1.3(수) ~ 1.16(화)	1.18(목)	1.23(화) ~ 1.27(토)	1.30(화)	수정점	150명
2차	1.31(수) ~ 2.13(화)	2.20(화)	2.27(화) ~ 3.3(토)	3.6(화)	분당판교점	200명
					금광점	200명
3차	2.21(수) ~ 3.6(화)	3.8(목)	3.13(화) ~ 3.17(토)	3.20(화)	중원점	200명
					분당구청점	300명
					양지점	300명
4차	3.21(수) ~ 4.3(화)	4.5(목)	4.10(화) ~ 4.14(토)	4.17(화)	수정점	100명
					시청점	400명
5차	5.2(수) ~ 5.15(화)	5.17(목)	5.23(수) ~ 5.26(토)	5.29(화)	금광점	100명
6차	5.30(수) ~ 6.12(화)	6.15(금)	6.19(화) ~ 6.23(토)	6.26(화)	분당판교점	400명
					양지점	150명
					중원점	250명
7차	6.27(수) ~ 7.10(화)	7.12(목)	7.17(화) ~ 7.21(토)	7.24(화)	시청점	400명
					수정점	150명
8차	7.25(수) ~ 8.7(화)	8.9(목)	8.14(화) ~ 8.18(토)	8.21(화)	양지점	200명
					분당구청점	250명
9차	8.22(수) ~ 9.4(화)	9.6(목)	9.11(화) ~ 9.15(토)	9.18(화)	금광점	100명
					분당판교점	400명
10차	9.18(화) ~ 10.2(화)	10.10(수)	10.16(화) ~ 10.20(토)	10.23(화)	중원점	250명
					시청점	600명
11차	10.24(수) ~ 11.6(화)	11.8(목)	11.13(화) ~ 11.17(토)	11.20(화)	수정점	100명
12차	11.28(수) ~ 12.11(화)	12.13(목)	12.18(화) ~ 12.22(토)	12.26(수)	금광점	200명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neducare.or.kr) 참조

센터 031-721-1640(내선 5번)

시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요

2018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 개최

성남시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50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새해 인사회를 열어 시민들과 새해 희망을 나누며 주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한다. 동별 유관기관과 단체의 장, 각계각층 대표 등과 대화의 장도 마련된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답게 주민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된다. 2017년 새해 인사회에서는 총 476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교통·환경·공원, 교육·문화, 복지·안전·의료 분야 순으로 건의가 많았다.

일시		대상	개최장소
1. 9.(화)	오전(10:00)	수정구	을지대 뉴밀레니엄센터 대강당
	오후(15:00)	분당구갑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11.(목)	오전(10:00)	분당구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 파크 대강당
	오후(15:00)	중원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2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Q A씨는 2015년 1월, 20년 지기 친한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줬다. 작년까지 이자를 매월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만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 A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A **A씨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B씨의 재산을 압류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대신해 주로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으로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차용증 및 계약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 청구금액, 그 금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판교테크노밸리 탐방 12

꿈을 싣고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네오트랜스



◀신분당선 열차



신분당선 차량기지▶ 안전점검

자리는 양보할 수 있지만, 안전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네오트랜스는 2005년 두산건설을 비롯한 7개 건설회사가 출자해 만든 민간 철도운영사다. 대부분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운영권을 가진 대중교통의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한 참신한 기업체이며 직원은 계약직 포함 550여 명이다. 운영노선은 2011년 개통된 신분당선과 2016년 운영 개시한 용인에버라인(2013년 개통)이 있고 대곡~소사선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 2018년 개통예정인 미금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강남~신사 구간이 완공되면 서울과 경기를 잇는 가교 역할을 더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당선은 지구 375바퀴에 해당하는 약 1,500만Km 무사고 안전운행, 무재해 287만 시간 달성, 운행 정시율 99.99%의 안전한 명품지하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민간회사이기에 가능한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정신이 일궈낸 산물이다. 네오트랜스가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국내 유일의 무인 중전철이며 전 세계에서 5번째다. 또 무인 중·경전철(신분당선 및 용인에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 세계 5번째 기업이기도 하다. 현재 신분당선은 2011년 개통 이후 6년간 국내외 약 300개 기관, 5천명 이상이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자연과 첨단, 사람과 문화의 행복한 만남' 문화지하철의 감동을 실현

네오트랜스는 고객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예능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고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지하철이 그 예다. 매달 신분당선과 성남문화재단이 함께하는 '판교역 문화마당'은 문화지하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공연, 영화,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분당선 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해 새로운 공연문화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밖에도 버스킹,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및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정민철(60) 대표이사의 경영이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미래혁신경영, 일과 삶의 균형, 위기대응경영"이다. 특히 "일과 가정의 균형 아래 직원 개개인의 성장이 부서와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회사의 발전이 직원과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안정적인 철도운영은 물론 유지보수, 문화예술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최고의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네오트랜스는 성남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시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장갑,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제공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키트 제작', 어린이들에게 산타가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해주고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는 '응답하라, 산타클로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관절 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연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무인지하철'이라는 국내 철도 기술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네오트랜스의 다음 행보가 매우 기대된다.

㈜네오트랜스: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3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성남산업진흥재단, 게임 생태계 활성화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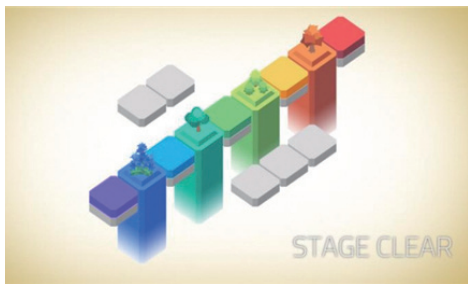
2017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수상작 출시

게임 메카 성남시가 독창성과 도전 정신을 내세운 인디게임 저변확대를 위해 진행한 '2017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 Step UP! 프로젝트' 출시 지원 부문 수상작들이 11월 말 출시됐다.

'2017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원스토어(주)와 유니티코리아가 홍보·마케팅 등을 후원한 공모전이다. 개발지원 부문, 출시지원 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 멘토링, 도쿄게임쇼 참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출시지원 부문 수상작 4종이 출시돼 구글플레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모전 후원사인 원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성남 차세대 융합 콘텐츠 캠퍼스(Connect21) 개소에 맞춰 추진된 공모전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겪는 개발과 출시, 홍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누구나 쉽게 즐기는 컬러 퍼즐, 'Colorzzle'

성남산업진흥재단 장병화 대표이사는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을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도시 중심 메카로 발전할 것이며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성남 소재 게임업체 종사자들과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콘텐츠산업부 031-782-3095



동화 속 어린왕자가 되어 여우와 술래잡기를, '어린왕자 - 술래잡기'



이제는 동료다! '창기사 키우기 : 방치형 영웅 키우기'



시티투어 '도시락(樂) 버스' 겨울 관광 상품 마련

성남 눈썰매장~판교박물관~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성남시는 관광객들의 요청에 따라 '시티투어 도시락(樂) 버스' 운행 코스에 겨울 관광 상품을 새로 마련해 12월 16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겨울 관광코스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분당구 판교동 판교박물관~야탑동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다. 각각의 코스에서 신나는 겨울철 레포츠, 고구려와 백제 돌방무덤으로 시간여행, 목공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내년 2월 10일까지 토요일에 30인승 도시락 버스가 서울시청역(오전 8시), 교대역(오전 8시 20분), 성남시청(오전 9시)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오후 4시 30분까지 겨울 관광 코스를 돈다. 8차례 운행하며, 가이드가 동행한다.

도시락 버스를 예약하려면 성남시티투어 홈페이지(www.seongnamtour.com)나 운영 업체인 ㈜로망스투어로 전화(070-7813-5000)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1만2천 원이다.

성남시는 2015년도부터 올해로 3년째 '도시락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락처럼 다양하게 엮어내는 관광 상품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줘 호응이 크다.

관광과 관광개발팀 031-729-8602

폐교 앞둔 영성여중 '성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탈바꿈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내 3개 중학교 통폐합으로 폐교(2019년 3월)를 앞둔 옛 영성여자중학교(현재 창성중)가 오는 2019년 말 '성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탈바꿈한다.

성남시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12월 12일 '옛 영성여자중학교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 수 감소로 2019년 3월 폐교 예정인 영성여자중학교 건물을 문화예술교육 시설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절차다(한국판 '아난딸로(Annantalo)').

현재 해당 학교 건물은 영성여중, 창곡중, 창곡여중 3개교를 합친 21학급의 창성중학교가 올해 3월 개교해 2019년 2월 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할 때까지 사용하기로 한 상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옛 영성여중 건물이 비워지면 성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및 교육 활동 시설로 공동 조성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내년 1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비 확보 방안과 분담률, 세부협의 사항을 논의한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기관으로, 1886년 세워진 폐교 건물을 1987년 개조했다. 오래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 성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 031-729-2972

특수형광물질 도포로 범죄예방



성남시는 성폭력 등 침입범죄의 사전 예방으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11월까지 성남시 주택지역 6,500개소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 75개와 현수막 40개를 설치했다. 1억 원의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받았다.

특수형광물질 도포는 2014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돼 성남 내 침입범죄율 감소와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수형광물질은 손이나 옷 등에 묻으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잘 지워지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장비를 이용하면 흔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 추적이나 증거물 확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2018년에도 1만여 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추가 도포해 '안전도시 성남' 구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관 안전협력실 031-729-4202

알아두면 좋아요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연체금 부과방식이 고정에서 일할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납기일이 지나면 고정 2%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변경 후에는 납기일이 지나면 1개월까지 일할방식으로 연체금을 부과한다. 1개월 이후는 종전과 같이 2%를 적용한다. 10만 원의 수도요금을 1일 연체 시, 기존에는 10만6천 원을 내야했으나 이제는 10만60원만 내면 된다.

수도행정과 요금팀 031-729-4062~6,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 031-729-4173~4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제거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제거한다. 단,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청소·보수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 출입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신축 화장실은 출입구를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 등 공중화장실법에 적용되는 민간시설 관리자는 휴지통을 제거해야 한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729-319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안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신청시기는 11월 1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데,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대상은 ▲수급자는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20세 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등록 중증장애인)이다. 올해 11월부터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신청할 필요가 없다.

각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겨울방학, 성남이 좋다!





1 성남을 걷다 포스터
2 김춘재 작가의 '성남에 고향을 심자'
3 김보중 작가의 '108걸음 중 54걸음'
4 전시실 첫공간
5 이만나 작가의 '벽'
6 최자운 작가의 작품들



성남아트센터 성남을 걷다

성남의 서로 다른 얼굴을 만나다… '성남의 얼굴展'

'성남의 얼굴展' 〈성남을 걷다 Finding Seongnam〉이 12월 8일,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에서 개막했다.

2006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 온 '성남의 얼굴展'은 원도심과 신도심 전체를 세심하게 보듬기 위해 중진 작가들의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젊은 작가의 발굴에도 진취적인 변화를 모색해왔다.

이번 전시는 '성남을 걷다 Finding Seongnam'이란 주제에 걸맞게 지역의 물리적·심리적 지형을 12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과 호흡으로 서로 다른 '성남'으로 투영해 보여 주는 40여 점의 회화, 영상, 사진, 설치 작품과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로비공간부터 **김보중** 작가의 '108걸음 중 54걸음'이란 작품으로 시작된다. 38개의 15호크기 캔버스를 연결한 약 20m 길이의 작품이 '길'처럼 한 피스에 한 걸음씩 늘어서있다.

도슨트를 따라 전시실에 들어서면 **유근택, 송윤주, 이현무, 김호민, 김춘재** 작가의 평면작품과 **허수빈** 작가의 설치작품에 이어 **조이경** 작가의 영상작품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유근택** 작가는 신도시의 일상적 풍경에 판타지적 요소를 더한 '어떤 장엄한 풍경' 시리즈와 청소년기 단대동 풍경으로 1980년대 감성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Night Light' 두 작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송윤주 작가는 성남의 랜드마크 남한산성과 율원, 돌마원을 캔버스 위에 안료를 쌓아올리거나 긁어내, 상형문자와 음양기호로 상징화한 회화작품을, **김호민** 작가는 남한산성의 남문을 배경으로 시대를 초월한 인물을 대비시킨 신작을, **김춘재** 작가는 반세기 전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신도시인 성남의 특징을 상업 간판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했다. **이현무** 작가는 도시의 특정 시공간을 렌즈로 삼투한 이미지를 두꺼운 회화용 매트지에 아득한 화면으로 담아냈다.

설치작가 **허수빈**은 이 겨울,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파릇한 식물이 하늘거리는 봄 풍경의 창밖과 막힌 벽면에 비친 햇살 등 '진실과 연출'에 대한 반전의 작품을 선보이며, **조이경** 작가는 탄천을 모티프(motif)로 평면과 영상작업을 진행해 오필리아(Ophelia)와 탄천을 콜라주한 20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김보중, 최자운, 장원석, 이만나, 박서연** 작가의 작품들이 파노

성남미디어센터 겨울방학 미디어스쿨 프로그램으로 즐겨 보자!

겨울의 절정 1월이다. 손이 꽁꽁 얼고 코끝이 찡하도록 추워도 학생들은 방학이 있어 즐겁다. 하지만 집에서만 보내는 방학은 조금 아쉽다. 이번 겨울방학은 성남미디어센터의 겨울 프로그램으로 알차고 특별하게 보내 보자.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준비한 겨울 미디어스쿨 프로그램은 영상, 사진, 코딩, 라디오, 만화 등 9개 분야로 스마트 역사영상 제작, 웹툰작가 영화감독 되다, 신기한 영화세상 – 무비랜드, 수다는 콘텐츠가 되다 – 팟캐스트, 애니야 놀자 등 21개 강좌가 개설됐다.

수강은 프로그램별로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이 나뉘어 있고 접수는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snmedi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하거나 미디어센터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는 12월 15일부터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접수다. 원하는 강좌가 있다면 전화 문의 후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남아트센터 내에 위치한 성남미디어센터는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성남시의 지원으로 건립해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미디어센터는 '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라는 비전으로 미디어 교육과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 지원, 독립영화 제작지원 등 다양한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다.

'미디어(media)'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체다. 영상, 사진,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 외에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에 접근이 쉬워졌다. 이런 미디어 활용을 도와 줄 성남미디어센터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올 겨울방학에는 어떻게 지낼까? 여기저기 돌아봐도 성남이 그만이다. 천 원의 행복, 시청 스케이트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을 비롯해 겨울독서교실이 있는 중원어린이도서관을 추천한다. 문화와 함께하려면 성남아트센터 '성남의 얼굴展',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스쿨도 좋다.


4

라마로 조우를 기다린다.

김보중 작가는 오랫동안 분당에서 거주하며 지켜본 장면을 시기별·시점별로 조합했고, **최자운** 작가의 작품은 선과 도형을 통해 끝이 가로막힌 커브길 등을 분할 배치해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구현했다. 기록적 성격을 지닌 **장원석** 작가의 파노라마 사진 작업은 잇는 역할과 끊는 역할의 '길'의 모순을 설명한다. 이 밖에도 익숙함이 낯섦으로 뒤바뀌던 두려움의 기억을 특유의 분사 기법을 통해 드러낸 **이만나** 작가, 우리 주변에서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대상들의 존재 가치와 그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서연** 작가 등 참여 작가들이 시각화한 다채로운 '성남'을 돌아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월 28일(일)까지 이어지며 정규 도슨트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 3차례 만날 수 있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진행하며 1회당 12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031-783-8141~9,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5


6

중원어린이도서관

■ 겨울독서교실

- **운영기간** : 1.16(화)~1.19(금) 09:30~13:00 [4일간]
- **모집기간** : 1.2(화) 09:30~1.5(금) 18:00 • **추가모집** : 1.8(월) 09:30~1.12(금) 18:00
- **모집대상** : 성남시 초등학생 3~5학년 24명
- **접수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http://cjw.snlib.net)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운영시간표**

일시	1.16(화)	1.17(수)	1.18(목)	1.19(금)
09:30~10:00	개교식 및 소개	아침독서	아침독서	아침독서
10:00~11:00	– 요리 – 친구들과 함께! 한마음 요리교실	– 역사 – 조선, 싸울 것인가 화친할 것인가	신나는 독서토론	– 과학 – 재미있는 신소재 생활 속 고분자 물질
11:00~12:00				
12:00~13:00				설문조사 및 수료식

■ 겨울방학특강

- **운영기간** : 1.16(화)~1.26(금) [2주간]
- **모집기간** : 1.2(화) 10:00~1.5(금) 18:00 (강좌별 접수시간 확인)
- **모집대상** : 성남시 거주 유아 및 초등학생
- **접수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http://cjw.snlib.net)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재료비 및 개인준비물, 강의계획서는 〈문화행사〉 → 〈문화행사 수강신청페이지〉에서 확인

- **운영일정**

강좌명		일정	대상	내용
생각 쑥쑥 통합 책놀이	A	1.16(화)~19(금) 15:30~16:30	유아 6~7세(12명)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읽고 만들기 등의 독서 놀이활동
	B	1.16(화)~19(금) 16:30~17:30	초등 1~2학년(12명)	
다도와 마음 만들기		1.16(화)~19(금) 10:00~12:00	초등 1~3학년(15명)	우리나라 차 문화의 역사와 종류, 예법, 효능알기
창의 톡톡 어린이 코딩		1.23(화)~26(금) 14:00~16:00	초등 1~3학년(20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창의력 코딩
풍선이랑 페인팅이랑		1.23(화)~26(금) 10:00~12:00	초등 3~4학년(15명)	풍선모양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페인스페인팅
생활속 재미있는 과학	A	1.16(화)~19(금) 13:30~14:30	초등 3~6학년 (각 15명)	생활 속의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알고 이를 활용한 실험 및 만들기
	B	1.16(화)~19(금) 14:30~15:30		

※ 겨울독서교실, 겨울방학특강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어린이 ID로 로그인해야 신청가능

스케이트장·눈썰매장 천 원의 행복

장비 대여료 포함 입장료 1천 원… 2월 11일까지 운영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에 눈썰매장을 각각 조성해 12월 16일 문을 열고 2월 11일까지 58일간 운영한다.

입장료는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천 원이다.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은 전체 3,200㎡ 규모다. 한꺼번에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링크(27m×60m)가 조성됐다. 휴게실, 북카페가 있고, 빙판에 영상 스크린이 설치·운영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회당 1시간씩 오후 8시까지 모두 7회 운영한다.

6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스케이트 강습교실이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5주간 일주일 단위로 운영된다. 평일 오전 10시와 11시 30분에 각각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강습비는 주 1만 원이다.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은 각각 9레인의 성인용 슬로프(18m×51m)와 유아용 슬로프(14m×30m) 2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민속놀이 공간과 보드게임장, 포토존이 마련된다.

눈썰매장은 평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매회 1시간 40분씩 모두 4회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 1회 연장 운영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두 곳 레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알림판에 운영사항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 준다.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031-729-3054





바람 따라 온 손님, 겨울 철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호사비오리도 찾아와



탄천이 호사비오리를 맞이했다. 호사비오리는 보기 쉽지 않은 새다. 드물게 우리나라를 찾아와 월동하고 돌아간다. 해마다 가을 무렵부터 월동을 위해 새들이 찾아온다. 성남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가는 새에는 어떤 새가 있을까. 성남시에서는 매년(2007~)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절기 탄천조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 이원용 팀장은 "탄천 조류모니터링(저수지 5개소 포함)은 해마다 8회 진행해 겨울철새, 여름철새, 텃새 등의 종류와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를 갱신하고 성남지역의 개발 사업 진행 시 자연환경조사결과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성남시 어린이,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자료로도 제공한다"고 했다.

지난해 6차에 걸쳐 조사한 동절기 모니터링 결과 총 7,661마리의 겨울철 물새 중 오리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오리과의 물새는 쇠오리, 고방오리, 비오리, 넓적부리오리 등 다양한데 이들 오리는 수면성 오리와 잠수성 오리로 나눌 수 있다.

탄천에 있는 오리들을 관찰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수면성 오리는 물에 머리와 목을 담그고 먹이활동을 하며 날아오를 때 바로 물을 차고 오른다. 청머리오리, 쇠오리, 고방오리 등이 수면성 오리다. 잠수성 오리는 잠수해 먹이 활동을 하며 물 위를 달리다 날아오른다. 흰죽지와 비오리 등이 잠수성 오리다. 이번에 성남을 찾은 호사비오리도 잠수성 오리다.

올해도 10월 첫 동절기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차 모니터링에서 비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논병아리 등이 날아온 것이 확인됐다. 논병아리는 물속으로 잠수해서 먹이 활동을 한다. 이름에 병아리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아리와 울음소리가 다르다. 소리가 작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쇠오리의 울음소리도 독특하다. 일반적인 오리들과 달리 '소르륵 소르륵' 휘파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난다.

철새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먹이가 풍부하고 하중도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또 주로 탄천 중류보다는 탄천 상류(용인 경계)와 하류(서울 경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새들에게 하중도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 탄천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이다.

자연환경모니터들은 지정된 모니터링 날짜 외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탄천 물새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관심으로 지난 11월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호사비오리를 발견했다. 호사비오리는 비오리와 비슷하지만 비오리와 달리 몸에 있는 뚜렷한 물결무늬가 특징이다(사진 앞쪽).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어서 오세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새롱이새남이집





성남시 복정동에는 이름만큼 예쁘고 따뜻한 엄마와 아기들의 보금자리,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새롱이새남이집이 있다.

사회의 편견 속에 학업과 취업 포기, 기본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미혼모들. 이제는 미혼모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 대신 두리모("둥글다"와 숫자 "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두리"에 어머니를 결합함)라는 새로운 이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미혼인 엄마들(이하 두리모)과 자녀가 공동으로 가정을 이뤄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키우는 두리모로서 양육과 자립의 의지가 확고하며, 일정기간(현재 2년간 거주 가능)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친정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선자 원장은 "한걸음씩 엄마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는 엄마와 아기가 빈 몸으로 와도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에요.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고, 새 생명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소개한다.

자립지원 서비스도 다양하다. 심리상담서비스(개인 및 집단상담, 가족치료 등), 교육서비스(아동양육 및 부모교육, 경제와 학대예방 등), 자립지원서비스(검정고시학습,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 여가문화서비스(야외문화체험, 기념일행사, 봉사활동 지원 등), 보호의료서비스(숙식과 보호지원, 예방접종, 진료, 의료비,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연계서비스(퇴소자자조모임지원, 멘토링 연계)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기의 백일과 돌잔치, 엄마 생일파티 등도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새해부터는 희소식도 많다. 퇴소자에게는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기존의 300만 원에서 2018년부터는 5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 성남시 새롱이새남이집만의 장점을 들자면 자립사업장 운영을 꼽을 수 있다. 서울과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작년 말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새해부터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 카페운영과 케이터링 사업, 바리스타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가정의 생활인대표 화니맘은 "퇴소 이후에도 가까운 거리에 이웃해 사는 분들도 많고, 자조모임을 만들어 1박 2일 캠프도 다녀옵니다. 사회에서 만난 새 가족들이지요. 서로 사회생활이나 육아정보도 공유하고요. 정말 든든한 언니, 친구, 동생들이 생겨서 정말 기뻐요"라고 활짝 웃는다.

이선자 원장은 "살림을 도와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 후원천사님들, 매일매일 남은 반찬을 기부해 주시는 판교 '착한부페 디딤' 사장님 등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정동의 육류유통업체 '복정동사람들'에서 고기를 기부해 주시는 날에는 즐거운 고기파티도 열립니다. 육아용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거듭 감사인사를 전한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당당히 두리모의 길을 선택한 엄마들. 아기와 엄마,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녀들의 당당한 선택을 응원한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18번길 15-10, 전화 031-755-5453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깨끗이 세탁된 이불은 누가 덮을까요?

'나눔 세탁봉사단'의 110번째 이야기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 어려운 이웃의 이불세탁을 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러 상대원 고갯길을 올랐다. 성남에는 개인이든 단체든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덮을 이불을 세탁해서 그날 바로 전달해 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주일 내내 생업에 종사하고 하루 쉬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가가호호 이불을 수거하고 오후 3~4시까지 100여 장의 이불을 집집마다 전달하며 인사나누다 보면,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다.

2008년 3월, 고인이 된 1대 단장과 함께 한국세탁업 동부지회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6명이 세탁봉사를 시작한 '나눔 세탁봉사단(2대 단장 김석겸)'은 현재 16명의 회원이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단장의 세탁작업장이 있는 상대원 아파트형공장으로 모인다.

4대의 자가 차량으로 2인 1조가 돼 수정구·중원구 복지관,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돌봄가정, 장애인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이불을 수거해 오기에 바쁘다.

가져온 이불은 일일이 이름과 주소별로 라벨작업을 거친 후 종류별로 나눠 세탁에 들어간다. 90% 이상이 30년 넘게 세탁업에 종사해온 회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탁물도 말끔하게 처리된다.

탈수된 이불이 건조돼 나오는 순간 구름처럼 포근함이 느껴진다는 회원들은 그 순간이 보람이라고 한다. 장마철, 지하에 사는 할머니 댁에 이불배달을 갔는데 연락은 되지 않고 문은 잠겨있는데 물이 차 있었다. 통장에게 연락해서 창문을 열고 힘들게 들어가 할머니를 구해냈던 봉사단장의 이야기는 듣는 이도 감동적이었다.

세탁된 이불을 전달하러 갔다. 전화를 하니 문에 걸어두라고 했는데 이불이 없어졌다고 했다. 사비로 사계절 이불을 한꺼번에 사드렸던 방종근 사무국장(혜성세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배달차량은 각자 차량으로 무료봉사를 하고, 김석겸 단장(그린벨리 운영)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세탁기, 건조기 등 공장 가동을 위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세탁물량이 많아 기계가 모자랄 때는 같은 건물 내 봉사단 회원 사업장(닥터크리닝)에서 나눠서 세탁을 한다. 16명(여 3명, 남 13명)의 회원은 세제, 행굼제, 세탁한 이불을 넣을 비닐봉투 구입을 위해 회비를 지출한다.

박문숙(대화세탁) 회원은 "1개월에 한 번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만큼 깨끗함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내 부모형제 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세탁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구름처럼 포근한 이불을 덮고 저녁이면 좋은 꿈을 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람 있는 이불세탁 봉사는 111번째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나눔 세탁봉사단 사무국장 010-8414-8435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사람책을 통해 존엄성과 권리 알다

세계인권의날 기념…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을 읽다





"인권이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 학생이 물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해"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다. 막연하나 옳은 말이다. 다만 그 학생이 궁금해 하는 건 '누구나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했는데 당연한 권리가 침해된 현실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성남아시아평화리더 꿈의 학교' 김영아 대표 인터뷰 중 –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 '성남아시아평화리더 꿈의 학교'에서 기획한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을 읽다'란 행사가 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렸다. 종이책이 아닌 사람책을 읽는다? 독자들이 빌리는 것은 책이 아니라 사람(Human Book)이다. 휴먼북과 마주 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생각을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 각계각층, 특히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10명 인사들이 가진 이야기가 사람책을 읽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대출됐다.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한 초등학생의 질문에 "'나는 존중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란 생각이 인권 보호의 첫 걸음이며 나 자신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렇게 한 학생의 질문이 이번 행사의 씨앗이 됐다"고 김영아 대표는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들의 연기활동을 직업으로 인정받게 한 장애인 극단 '휠'의 송정아 대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의 눈으로 한국사회를 표현해 보고 싶다"는 영화감독 섹 알마문,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김수환 활동가, 성남이로운재단 장건 이사장, 조덕상 변호사, 탈북 청년 김주원 씨 등 각 분야에서 평화리더로 활동 중인 10명 멘토가 '사람책'으로 기증됐다.

사람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책을 선택해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소수 약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읽어가며 당연히 평등해야 할 평화와 인권을 배웠다.

참가자 이찬숙 씨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과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을 평화카드에 기록했다. "만물이 서로 돕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해가는 걸 배울 수 있었다"는 참가자 김경희 님,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당연한 이치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등 많은 생각들이 독서후기로 남겨졌다.

성남아시아평화리더 꿈의 학교는 2015년 창립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교육과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 사업,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비자발적 이주를 평화를 향한 이주로 이끌기 위한 활동 등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성남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성남시 인구정책 주제로 다양한 토론 이어져



▲'성남시 인구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성남시의회 정책포럼

성남시의회는 11월 2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남시 인구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문화복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포럼은 이희선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성남시 인구정책의 과제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성남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성남시 출산율 실태 및 대책방안 ▲주택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분석 ▲저출산 극복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다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유석 의장은 "의원들은 심각한 인구절벽을 체감하며, 의회 차원에서 국가적인 위기의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회 취지와 축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선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성남시 가족정책의 방향이 '돌봄(양육)'을 가정의 영역에서 사회와 국가 영역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견 개진도 눈에 띄었다. 의원들은 "주택문제가 결혼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주택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에 육아보육센터를 설치하면 일자리 제공, 재능기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육아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인구정책 관련 토론 외에도 앞으로 꾸준히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포럼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법률·재정분석 고문 위촉



▲의장실에서 진행된 법률고문 및 재정분석고문 위촉

지난 11월 24일, 성남시의회는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1명과 재정분석 고문 2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김성만 변호사가 입법고문으로, 정창수 박사와 김인철 박사가 재정분석고문으로 위촉됐다.

위촉된 3명의 고문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예산편성, 결산, 회계, 세무 심의와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 경제, 통계 분석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여러분의 활동이 성남시정 운영과도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을 꾸준히 방문 중인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 기간 전후로 대내외를 누비며 열린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내에서의 회의 진행을 비롯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을 두루 방문하며, 현장행정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12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는 판교박물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정자2동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며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 하루 종일 이어진 스케줄에도 모든 의원들은 성실히 현장방문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위원들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현장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앞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성남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성료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는 12월 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의 건 등을 다루고, 5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모든 의원들이 의회 안팎을 누비며 최선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의장은 "쌀쌀한 날씨에 모든 의원들이 대내외로 민생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곧 다가올 희망찬 새해를 위해 우리 성남시의회는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소화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돋보이는 점도 많았다. 특히 주요 시 추진 업무에 대하여 다양한 해법 및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모든 의원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번 정례회는 참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연간 회의일수 : 7회 75일 정례회(41일), 임시회(34일)

회수	회기기간	회의일수		주요일정	비고
		금회	누계		
제235회(임시회)	1.15(월)~1.19(금)	5일	5일	• 본회의 : 2일(개회·폐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 1일 •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 2일	
제236회(임시회)	3.15(목)~3.19(월)	5일	10일	• 본회의 : 2일(개회·폐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 1일	• 토요휴무 (3.17) • 일요일 (3.18)
제237회(임시회)	4.20(금)~4.30(월)	11일	21일	• 본회의 : 2일(개회·폐회)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 1일 • 추경예산안 심사 : 3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1일	• 토요휴무(4.21, 4.28) • 일요일(4.22, 4.29)
제238회(임시회)	7.4(수)~7.6(금)	3일	24일	• 본회의 : 3일 의장, 부의장 선거 : 1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 1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 1일	
제239회(임시회)	8.1(수)~8.10(금)	10일	34일	• 본회의 : 2일(개회·폐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 1일 • 시정 업무보고 청취 : 5일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토요휴무(8.4) • 일요일(8.5)
제240회(제1차 정례회)	10.5(금)~10.29(월)	25일	59일	• 본회의 : 2일(개회·폐회) • 시정질문(본회의) : 1일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 1일 • 행정사무감사 : 7일(토, 일 포함 총 9일) • 2017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심사 : 2일 • 추경예산안 심사 : 1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 : 2일	• 토요휴무(10.6, 10.13, 10.20, 10.27) • 일요일(10.7, 10.14, 10.21, 10.28)
제241회(제2차 정례회)	12.3(월)~12.18(화)	16일	75일	• 본회의 : 2일(개회·폐회) ※시정연설 • 시정질문(본회의) : 1일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 1일 •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 4일 • 추경예산안 심사 : 1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3일	• 토요휴무(12.8, 12.15) • 일요일(12.9. 12.16)



건강칼럼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구정완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 겨울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감기, 독감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겨울철 감기·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와 습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적정 실내 온도는 18~20℃이며, 습도는 40~60%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실내 온도가 18~20℃라 하면 너무 추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내온도가 너무 높을 때 외부의 추운 날씨에 대한 인체 적응력이 떨어지고 난방비 또한 올라가게 돼, 국가적으로도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18~20℃로 정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5℃에서 내복을 입지 않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실내에서도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 실내 온도가 18~20℃라 할지라도 충분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실내온도를 낮추면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효과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차가운 외풍을 차단하자.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외부의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열 비닐시트, 방한 커튼, 문풍지 등 찬 바람을 막아주는 방한용품을 사용하면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체감온도를 3℃ 올려주는 내복을 입자. 조사에 따르면, 내복을 입었을 때 체감온도는 3℃ 가량 올라가고,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3℃가량 낮추었을 때 절약되는 난방에너지가 약 20% 정도라고 한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내복뿐 아니라 가벼운 실내 조끼와 양말 등도 함께 착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습도를 높이는 것으로 난방열을 잡을 수 있다.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한 가습기 사용은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 습도가 실내의 열을 오래 간직해 난방 효과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젖은 수건, 빨래 등을 널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부연 설명하기로 한다.

겨울철 실내온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 습도다. 적정 실내 습도는 40~60%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60% 이상일 때 곰팡이가 서식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40~60%의 적정한 습도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의 활동을 막아주고 따뜻한 난방열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겨울철 습도를 지키기 위해 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가습기도 깨끗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호흡기나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습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해야 하고, 한 번 사용할 때 3시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말고,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10분 정도씩 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실내에서 젖은 빨래를 건조시켜 습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빨래에 포함된 세제나 섬유유연제의 일부 성분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아토피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젖은 빨래는 충분히 헹구어 햇볕에 말리고, 습도를 위해서는 마른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실내에 널어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꾸준한 운동, 절주와 금연,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지킨다면 건강한 겨울을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춥다고 실내 난방온도를 높이 올려 지나치게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를 만드는 것보다,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18~20℃의 적정 온도와 40~60%의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건강교실

가스보일러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법

- 가스보일러는 배기통이 이탈하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
- 가스온수기는 환기가 잘되는 외부에 설치 (목욕탕 , 화장실 설치 금지)
-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전문가에게 시공
- 가스보일러 가동 후 인체에 두통·구토증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조회사나 시공사에 통보하여 점검받고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상태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받으세요

- **대상** : 2012.9.1~2017.8.31일 출생 어린이
-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1개월 간격, 두 번 무료 접종),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실시
- **기간** : 2018.4.30일까지

※ 59개월 미만 어린이는 첫 기본접종이 2회로 완료되며, 이전 접종 시 2회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2회 접종해야 하며, 이후 매년 1회의 추가접종을 받으면 됨

수정구보건소 031-729-3846, 3847
중원구보건소 031-729-3906, 3904
분당구보건소 031-729-4337, 3966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
- 야생조류 사체, 조류의 분변 등과 직접적인 접촉 피하기
-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 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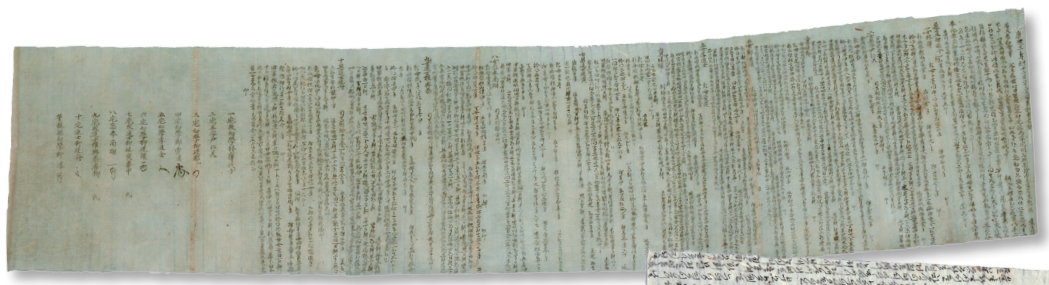
분당구보건소 031-729-8581~4

장서각 산책

친정제사 모신 해남윤씨가 며느리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1664년 윤인미 처 전주유씨 남매 분재기
▼유정린이 보낸편지

새해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조상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차례로 새해를 맞았다. 차례를 지내기 하루 전에 차례 지낼 곳을 청소하고, 제구와 제기를 꺼내 깨끗이 닦고, 차례 상에 올릴 술과 음식을 준비했다. 모사(茅沙)와 양초, 향도 준비하고 지방과 축문도 미리 써두었다.

요즘도 차례에 임하는 자식 된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차례나 제사를 떠맡는 부담은 장남과 시집간 딸이 똑같지는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수집한 해남윤씨 연동종택의 고문서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편지를 발굴하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우리 조상들의 설밑 풍경을 그려본다.

1664년 12월 26일, 새해를 며칠 앞두고 윤선도의 장남 윤인미의 집에 한글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이 편지는 윤인미의 처 전주유씨에게 그녀의 동생인 유정린이 보낸 것이다. 유정린과 형제들은 부모가 죽자 남은 재산을 서로 협의해 나눴다. 상속 대상은 유정린과 윤인미의 처를 포함해 적자녀 10명이었다. 윤인미의 처는 멀리 해남 땅에 살아 직접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정린은 누나에게 10남매가 나눠 갖은 상속 몫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남매가 돌아가며 맡아야 할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의 비용 충당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알렸다.

우리 선조들은 17세기 중엽까지는 균분(均分)상속을 고수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장남이나 차남, 딸 관계없이 골고루 나눴다. 전주유씨 10남매가 모여서 각자 가질 몫을 따져 보니, 노비가 일곱씩이고 토지는 대략 밭 엿새 갈이씩과 논 다섯 마지기씩이 돌아갔다.

그렇다면 출가한 딸인 윤인미의 처는 친정에서 얼마의 재산을 받았을까? 그녀가 받은 재산은 강화도의 논밭, 도망간 노비 1명과 결혼할 때 이미 받은 신노비를 포함해 8명의 노비이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동생 유정린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장남이지만 유정린은 사정이 좋지 않았다. 상속받은 노비들은 죽고 달아나서 영 제 몫을 못하는데, 이를 포함해서 분재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겨우 노비 하나를 더 받았을 뿐이었다.

유정린은 장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종 둘과 밭 하루갈이와 논 세 마지기를 더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당제사에 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동생들의 형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비교적 여유 있는 누나는 이러한 동생들의 팍팍한 형편을 생각해 자기의 몫으로 오는 소작료를 제사 비용으로 쓰도록 양보했다. 이 편지는 부모님 사후에 처음으로 새해를 맞아 돌림제사가 임박했으니 전에 누나가 한 약속을 확실히 해달라는 뜻에서 보낸 것이다.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 받았다면 장자만이 제사를 맡아 지낼 이유가 없다. 자식들은 제사의 의무도 똑같이 짊어져야 한다. 자식들은 순서대로 제사를 맡았다. 누나는 동생의 형편을 감안해 자기 몫인 소작료를 양보했지만, 자기가 맡은 돌림제사의 의무는 다했다. 해남윤씨 연동종택에는 전주유씨의 형제들이 돌림제사를 맡아 지낸 기록들이 남아있다. 기록을 보면 윤인미의 처는 살아생전 총 16번의 친정제사를 모셨다.

자식들은 똑같은 비율로 부모의 유산을 나누고 조상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형제들이 처한 딱한 형편을 서로 감안해 주는 따뜻한 형제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새해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치르면서 선조들의 현명한 판단을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소비자 Q&A

국내 어학캠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은?

Q 지난 11월 초·중학생 두 자녀를 겨울방학기간 중 5박 6일 영어캠프에 보내기 위해 참가비 1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주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50%인 60만 원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캠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캠프 시작 1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접수비', '행정수속비'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체결 시 소비자가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일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20만 원 중 12만 원을 제외한 10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캠프 개시 1일 전까지는 20%, 개시 당일 통보 시에는 30%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또한 캠프 개시 후라면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총 이용금액의 2/3 환급, 1/2 경과 전에는 1/2 환급, 1/2 경과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정철 | 카피라이터. 정철카피 대표.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카피책〉 〈내 머리 사용법〉 〈한 글자〉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꼰대 김철수〉 등의 책을 썼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018년 1~2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교육일정	내용
환경아 놀자	5세~7세 단체	화요일 11:00~11:50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환경에 다가가고,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단체프로그램
어린이 에코공방	8세~13세 어린이	화요일 14:30~16:00	다양한 재활용 재료와 자연물로 창작물 리폼을 통해 소품을 만들며 창의적인 흥미를 키우는 에코창작 프로그램
자연관찰학교	8세~11세 어린이	목요일 15:30~17:00	자연의 변화를 관찰, 기록하며 생태를 체험하는 정기 모니터링프로그램(2개월 정기참여)
에코키즈카페	5세~7세 어린이1명+보호자1명	금요일 14:30~16:00	어린이가 보호자와 짝을 이루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경험하면서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프로그램
가족생태교실	5세 이상 가족	토요일 10:30~12:00	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겨요. 계절을 주제로 생태관찰 및 체험이 진행되는 가족프로그램
가족에코스쿨	8세 이상 가족	일요일 10:30~12:00	환경과 관련된 재미나고 소중한 체험이 진행되는 가족프로그램

방학특강

프로그램	대상	교육일정	내용
가족 숲놀이학교	5세~7세 단체	화요일 11:00~11:50	계절에 따른 다양한 주제의 놀이와 체험을 경험하는 가족프로그램(우천시 우의 또는 우산준비)
엄마랑 친구랑 에코복주머니 만들어요	8세~13세 어린이	화요일 14:30~16:00	귀여운 복주머니 만들기. 되살림의 실천과 재활용의 가치를 깨닫고, 즐거운 놀이를 체험하는 가족프로그램
자연관찰학교	8세~11세 어린이	목요일 15:30~17:00	우리 생활과 멸종위기 생물들의 관계에 대해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알아가는 프로그램
에코키즈카페	5세~7세 어린이 1명+보호자 1명	금요일 14:30~16:00	놀이를 통해 평소의 생활양식을 되돌아보고,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는 달력 만들기
새와 함께 놀자!	8~10세 어린이	금요일 10:00~12:00	탐조활동과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새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와! 신나는 겨울 방학이다!	10~11세 어린이	토요일 14:30~16:00	동물들과 식물들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관찰과 체험을 통해 동식물의 겨울나기에 대해 알아가는 프로그램(1회 신청 시 2주씩 진행)
아빠와 함께! 탄소저장고 목재공방	8세 이상 가족 어린이 1명+보호자 1명	일요일 14:00~16:00	숲을 지키는 나무의 기후변화를 막는 역할 알아보고, 아빠와 함께 목재로 생활소품 만들어 보는 가족프로그램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전화접수 불가)
–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 특별프로그램 등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http://ppark.seongnam.go.kr, 031–8016–0100

판교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문화유산교육] 금박장의 금을 새긴 서표



- 교육과정 : 전통 금박 관련 이론 학습 및 금박 공예 체험 (서표·댕기·복주머니 만들기)
- 교육일시 : 1.13~2.10 중 매주 토요일(총 10회)
- 교육대상 : 성남시민 중 미성년자(1회 20명)
- 교육비 : 서표·댕기 5천 원, 복주머니 1만 원
- 접수기간 : 1.8(월) 10:00~ ※해당 매주 월~수요일
- 접수방법 : 판교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2월 '청소년 큐레이터 체험 봉사활동'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판교박물관 www.pangyomuseum.go.kr, 031–729–4536

맹산환경생태학습원 MaengSan Eco Center 2018년 1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업일정	대상	내용
에코 키즈 A	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5~7세)	1월 - 숲 속 동물들의 겨울 2월 - 새들의 겨울나기
에코 키즈 B		초등단체	
맹산 숲속 이야기	토 오전·오후	유아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초등가족	
함께하는 자연	별도 협의	장애인	단체 별 주제에 따라 진행
2018년 에코패밀리 모여라!	1.3(수)~1.5(금) 오전·오후	초등가족 중·고등학생	환경 실천 선언, 자원재활용 만들기, 사행시, 환경 림보, 친환경놀이, 환경 퀴즈 등

방학특강

프로그램	수업일정	대상	내용
유아환경교실1	1.11(목)	유아가족 (5~7세)	다양한 환경이야기를 주제로 한 동극 인형극 및 오감 체험놀이
유아환경교실2	1.18(목)		
유아환경교실3	1.25(목)		
자원순환교실	1.8(월)~1.12(금)	초등가족	Re-cycling & Up-cycling, 종이 만들기
에너지 교실	1.15(월)~1.19(금)		재생에너지 탐구, 에너지 팔찌 만들기
생물다양성교실	1.22(월)~1.26(금)		멸종위기 생물 탐구, 생물도감 만들기
에코베케이션	1월(화·목)	중·고등학생	자원순환, 에너지, 생물다양성 탐구 및 환경 봉사활동
친환경적인 전통과학	2.19~23	초등가족	전통과학 탐구, 친환경 자연놀이, 지끈 공예 등

※참여방법 : 개인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별 준비물은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맹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031–702–1192

바야흐로 청소년 시대!!

청소년재단,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성남시 청소년재단	제3대 성남시청소년 행복의회의원 모집	12.4~2018.1.5	성남시 청소년재단	관내 중 · 고등학교 재학 또는 거주 청소년	• 성남시 3개 지역구 청소년 대표의원들이 토론과 관련활동(정책과제 발굴, 설문조사, 토론회, 제안대회, 본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제안 활동을 운영	유선문의	031–729–9051
수정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치조직 모집	연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원봉사단, 놀이기획단, 미디어단, 공연단(TA), 문화기획단(ICS) • 성남FC청소년서포터즈 '슈터링', 동지운영위원회 ※ 상세내용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문의	유선문의	031–729–9231~8
	청소년 동아리 모집	연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 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2인 이상 등록 • 분야 : 댄스, 보컬, 밴드 등 • 내용 : 수련관 동아리 등록 시 연습실 이용, 소모품 지원, 각종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등	유선문의	031–729–9239
중원 청소년수련관	청춘당당	2018년 2월 중	수련관 공연장	대학생 및 후기 청소년	• 명사특강 및 진로 토크콘서트 ※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참조	유선문의	031–729–9338
서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동아리, 자치조직 모집	연중	수련관 및 야외활동지	청소년	• 청소년운영위원회 「W」, 기획봉사단 「그늘빛」 • 장애방과후아카데미 봉사활동 「따봉」 • 마을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 상세내용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문의 • 공정무역홍보단 「에브리바리스타」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서현PLUS」 • 대학생봉사단 「아우름」, 청소년동아리 「FEVER」	상시접수 전화문의	031–729–9431~8
	청소년 문화놀이터	연중	수련관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을 위한 포켓볼, 탁구시설 일일이용(이용료 1천 원) • 청소년 생일잔치, 동아리활동 등을 위한 공간 무료 제공	상시접수·전화문의	031–729–9453
정자 청소년수련관	2018년 자치조직 모집	연중 1~2월중	수련관 및 성남시 일대	중·고등학생, 대학생	• 활동기간 및 모집기간 2018년 1월~12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학생기획봉사단, 청소년기획봉사단, 공연기획단, 미디어기획단 • 모집인원: 총 100명 ※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이메일, 현장접수	031–729–9538
판교 청소년수련관	2018년도 청소년 자치조직 모집	1월 중	수련관 및 성남시 일대	청소년 (14세~24세)	•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 문화기획단 「T-main」, 생태탐사단 「수피아」, 재능봉사단 「파이」, 학습재능나눔단 「한울」 • 대학생자원봉사단 「끌」, 청소년자원봉사단 「사나래」 ※ 상세내용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문의	홈페이지 참조	031–729–9633
	청소년 동아리 연합 R.O.D.A	상시모집	수련관 및 성남시 일대	5인 이상 14세~24세 청소년	• 청소년 동아리(댄스, 밴드, 봉사, 학습 등) 모집 • 동아리별 5명 이상 필수 구성 • 동아리 활동실 상시 제공(1주일, 4시간) • 활동 유형에 따른 지원물품 제공	홈페이지 참조	031–729–9636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25(월)~1.20(토)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중등2~고등3학년	• 청소년운영위원회 「한울」,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섯손가락」, 남한산성 역사기획단 「산바람」, 청소년홍보단 「은홍시」, 청소년동아리 「하누리」 ※ 상세내용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문의	유선문의	031–729–9912~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연중모집		중등1~3학년	•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관리 지원 •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수업 • 직업체험, 동아리활동 등 토요체험활동	유선 및 방문 상담	031–729–9919 ~992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심리검사운영	연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등	• 종합심리검사(지능, 성격 등), 지능검사, MMPI, MBTI, 진로적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진행 ※ 비용 홈페이지 참조	상시접수	031–729–138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업중단 청소년	• 만 9세~24세(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기본검진(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C형 간염검사, 구강검사, 방사선 검사) • 전액 국고부담(본인 무료)		031–729–9172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남한산성‥ 김상헌과 최명길,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최근 영화 남한산성이 현재의 국제 정서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병자호란 당시 명분과 실리로 맞섰던 서인의 두 거두 김상헌과 최명길. 이들이야말로 아직까지 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애국애족의 인물이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호는 청음(淸陰), 우의정 상용(尙容)의 동생이다. 병자호란 때 척화파(斥和派)의 거두로 활약하다가 호란이 끝나자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면서 청나라에 대해 복수하고 치욕을 씻기 위해 와신상담의 뜻을 가다듬을 것을 주청했는데, 이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져 70세의 병든 몸으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됐다.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의 호는 지천(遲川), 아버지는 영흥대도호부사 기남(起南)이다. 최명길이 주화파가 된 데에는 그의 아버지가 여진족의 위협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영흥대도호부사로 부임해 점점 세력이 강성해지는 여진족을 상대하면서 장차 국난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아들 명길에게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길은 오로지 〈和〉 한 글자뿐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최기남의 묘가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에 있다.

마침내 병자호란(1636년)이 터지고 인조와 대신들과 조선군 장병들은 남한산성 안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산성 밖에서는 불쌍한 백성들이 청군의 만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산성 안에서는 척화파와 주화파 간에 끝없는 입씨름이 계속됐다.

1637년 1월 18일 최명길이 청 태종에게 '신(臣)'을 칭하는 항복문서를 만들자 이를 본 67세의 예조판서 김상헌은 항복문서를 찢어 버리고 통곡하면서 말했다. "명망 있는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소?" 그러자 최명길은 찢어진 국서를 주워 맞추면서 말했다. "대감은 찢으나 나는 주워 맞추리다." 결국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청나라 군복인 푸른 수달피 옷을 입고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군신관계'를 맹세했다. 이것이 삼전도 굴욕이다.

전쟁 후 최명길은 호란의 뒷수습을 하는 데 동분서주하며 명나라 군대를 도와줬는데, 이런 일들이 청나라에 알려지게 돼 1642년 청나라에 불려가 사형수를 가두는 북관(北館)에 갇히게 됐다. 거기서 2년 전에 먼저 잡혀온 김상헌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방에 같이 있게 됐다.

최명길이 처음에는 상헌이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의심해 정승 천거에서 깎아버리기까지 했는데, 같이 구금되자 죽음이 눈앞에 닥쳐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의 절의를 믿고 그 마음에 탄복했다. 김상헌도 처음에는 명길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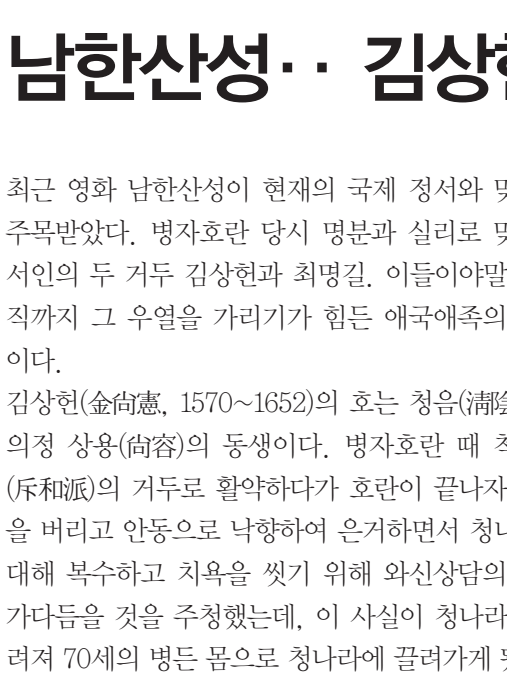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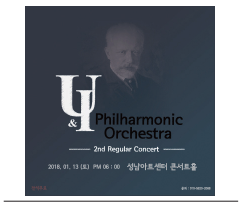


심했는데 그가 죽음을 걸고 스스로 뜻을 지키며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또한 그의 마음이 본래 오랑캐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두 집이 서로 공경하고 존중했다. 김상헌이 시를 짓기를 "양대의 우정을 찾고(從尋兩世好), 백 년의 의심을 푼다(頓釋百年疑)"고 하니 최명길이 답하기를,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끝내 돌리기 어렵고(君心如石終難轉), 나의 도는 둥근 고리 같아 경우에 따라 돈다(吾道如環信所隨)"고 했다. 결국 척화와 주화파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한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이달의 공연·전시 2018. 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018 무술년 천제봉행·해맞이 행사 일시 : 2018.1.1(월) 장소 : 판교 마당바위 및 판교청소년수련관 앞마당 문의 : 성남문화원 031-756-7802	3 호랑이 오빠 얼쑤 일시 : 1.3(수)~1.7(일) 수·목·금 11:00, 토 11:00, 14:00, 일 11:00 장소 : 앙상블시어터 가격 : R석 2만5천 원, S석 2만 원 문의 : 010-8273-0712			6 뮤지컬 〈헤드윅〉 일시 : 1.6(토)~1.7(일)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9만9천 원, R석 8만8천 원, S석 6만6천 원 문의 : 인터파크 1544-1555
					무 U&I Philharmonic Orchestra 제 2회 정기연주회 일시 : 1.13(토) 18:00 장소 : 콘서트홀 문의 : 010-3716-7134	13 패밀리쇼!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일시 : 1.13(토)~1.14(일) 11:00, 14:00, 16:3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5만5천 원, S석 4만4천 원 문의 : 창라이프 1566-6551
				18 성남시립교향악단 2018 신년음악회 일시 : 1.18(목) 20: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2만 원, S석 1만5천 원, A석 1만 원 문의 : 031-729-4809		20 이소라 콘서트 일시 : 1.20(토) 18: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12만1천 원, S석 9만9천 원, A석 7만7천 원 문의 : 1544-7543
21/28 세계명작 어린이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일시 : 1.20(토)~1.21(일) 토 11:00, 14:00, 16:00 일 11:00, 14:00 장소 : 앙상블시어터 가격 : R석 3만5천 원, S석 3만 원 문의 : 02-926-7988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가일 플레이어즈와 함께하는 FUN FUN CLASSIC〉 일시 : 1.28(일) 16: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R석 2만 원, S석 1만5천 원, A석 1만 원 문의 : 영음예술기획 02-581-5404	전 무 성남의얼굴展 〈성남을걷다〉 일시 : ~1.28(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개관 장소 :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1-783-8141-9	24/31		26 한국오페라 70주년 기념-2018 신년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시 : 1.26(금)~1.27(토) 금 20:00, 토 16: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R석 3만7천 원, S석 2만7천 원, A석 1만7천 원 문의 : 02-2232-1148, 1544-1555	27 케이윌 전국투어 〈THE K. WILL〉 일시 : 1.27(토)~1.28(일) 토 19:00, 일 18: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12만1천 원, R석 11만 원, S석 8만8천 원 문의 : 02-579-0229

전 : 전시 영 : 영화 무 : 무료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 반달갤러리, 갤러리 808 등은 성남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essay

2018년 새해에도 성남에는 천사가 넘쳐나길

남상민 | 분당구 이매동

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회단체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돈과 물품을 보내는 고마운 이웃들이 많다.
매년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성금 모금행사 및 이웃돕기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눈에 띈다. 뉴스 끝머리에 누가 얼마를 성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 누가 수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훈훈한 소식들이 연일 화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화제를 뿌리는 선행 외에도 우리 주변에 남몰래 이웃을 돌보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 단체에 한 장의 편지와 돈다발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진 천사가 한 분 계셨다. 이분은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를 맡기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이가 있을 테니 그가 오면 돌려주라는 말을 하고 가셨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찾아가는 이가 없어 검은 봉지를 열어보니 현금 47만 원과 '노인 중 무릎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자신도 수술비가 없어서 고통 받던 중 성남시에서 알선해 준 복지제도의 도움으로 무릎관절 수술을 받아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이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 어르신의 바람대로 그 돈은 생활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했던 독거노인께 쓰였다. 슬그머니 남을 돕거나, 이웃을 도와달라는 전화 한 통만 남긴 채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따뜻한 손길을 접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한다.
이분들이 남긴 편지나 메모 등을 보면 이들 또한 남보다 넉넉해서 남을 돕는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스스로 팍팍한 삶과 맞서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깊은 감동과 여운을 준다.
이제 2018년이 다가왔다. 새해에도 성남시에는 이런 천사 분들이 넘쳐나기를 바란다.

아내 나라의 말을 배웠습니다

강성주 | 분당구 서현동

저는 캄보디아 아내와 딸과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가 한국에 오고 처음 몇 달은 인근에 사는 몇몇 이주여성들과 교류를 할 뿐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일을 해야 해서 아내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섭섭하고 저는 저대로 불평이 많은 나날이 6개월 정도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보이지 않는 벽이 깨진 건 제가 아내 나라의 말을 조금씩 배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하는 직업이라 캄보디아어 회화 책을 사서 하루에 틈틈이 두 장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를 캄보디아어로 '츠카에'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츠카에를 최소 20번 이상은 썼습니다.
동물, 숫자, 가족 구성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아내는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더군요. 또 '많다, 춥다, 좋다, 나쁘다, 가깝다' 같은 간단한 단어를 그때마다 배워서 쓰면 발음이 나쁘더라도 아내가 알아듣고 올바르게 고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어 위주로만 소통을 하다가 문장을 조금씩 배우면서 완전치는 않아도 아내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는 즐거움과 아내의 웃음을 같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만큼 아내도 한국어 배우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말할 때는 아내와의 벽이 깨지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남에도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아내 나라의 언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노력을 한다면 아마 아내는 마음의 문을 더 많이 열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인만큼 아내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면 다문화가정이 더욱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photo



김승호 | 수정구 위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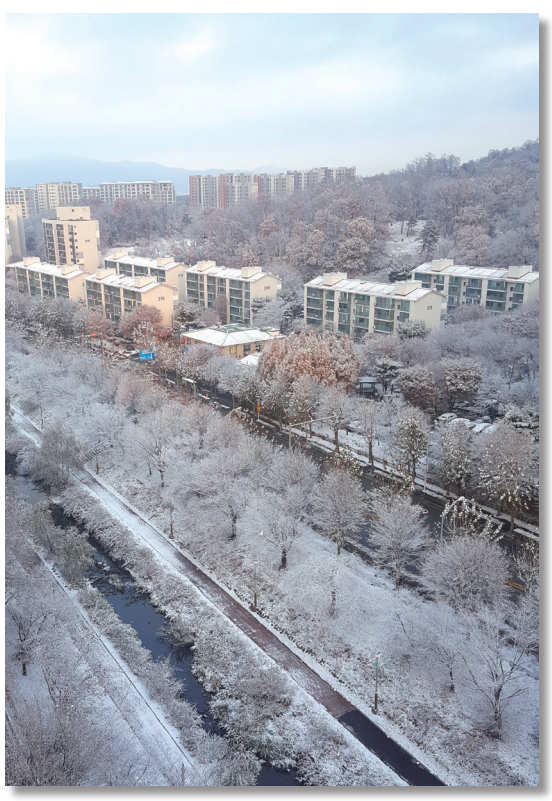
빛나는 새해 되길

성남시청 앞 화려한 빛의 향연. 매서운 겨울바람에 어깨는 움츠러들지만 아름다운 불빛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모두가 행복한 2018년 무술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성환 | 분당구 분당동

순백의 세상

설경은 어느 것이나 아름답다.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지친 현대인에게 밤새 내린 눈은 잠시나마 순백의 세상을 통해 순결함을 느끼게 한다.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A4 1/2장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2018년 1월 8일(월)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전화** : 031–729–2076~8 **이메일** : sn997@korea.kr

개인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 **보호대상** :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
- **보호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
- **보호금융회사** :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종금사

※ 5천만 원 초과금액,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예금보험공사 1588-0037

라온 시인학교 시창작반 모집

- **대상** : 시 창작 열정을 지닌 분, 시인이 꿈이신 분
- **내용** : 시 창작의 기초부터 등단 모색까지
- **과정** : 1년 과정(화요일 오후 14:00~16:00, 저녁 19:00~21:00)
- **수강료** : 월 10만 원
- **강사** : 라온 시인학교 교장, 중앙대 문학박사, 시인, 작가
- **장소** : 서현역 카페

라온 시인학교 시인 김신영 010-8632-0578

행복드림학교 2018년도 신입생모집

- **모집과정** : 한글교실, 초등과정(검정고시), 중등과정(검정고시)
- **모집인원** : 각 20명
- **수업시간**
  - 주간반 : 10:00~12:30, 13:00~15:00
  - 야간반 : 19:00~21:30
- **수업료** : 무료
- **학교위치** : 성남종합운동장(씨름장 앞)

행복드림학교 031-757-3095, 010-9092-3095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란?**
  3가지 이상 이·미용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 제도
- **총액 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건** : 3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처분기준**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
- **시행일** : 2017.11.16(공포이후 2개월)
  - 항목별 가격 및 총액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적용가능일
- **내역서 제공대상** :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기재하여 손님에게 미리 고지)
- **지불내역서 포함 사항**
  - 이·미용서비스 개별 항목별(품목) 및 가격,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총액(합계액)

수정구 환경위생과 031-729-5311, 중원구 환경위생과 031-729-6311
분당구 환경위생과 031-729-7311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018년도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중학교 입학 자격 및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전형방법** : 만 15세 이상자, 무시험 전형, 연장자순 모집
- **모집기간** : 2018.1.9(화)~1.24(수) 09:00~16:00(토·일 제외)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2층 본교), 본인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 **등록금 및 수업료** : 무료
- **위치** :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77(삼평동)

※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평소엔 인터넷으로 강의 수강(한 달에 2번 격주 일요일 출석)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544-1294, 031-8016-101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2017.11.30부터 온라인으로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 통합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지원서비스**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청각쿠폰,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한국지역난방공사만 가능)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 **업무개시** : 12.26(화) 09:00
- **이전장소** : 중원구 광명로 89, 1층(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
- **참고사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 중원노인복지관 건물에서 동일하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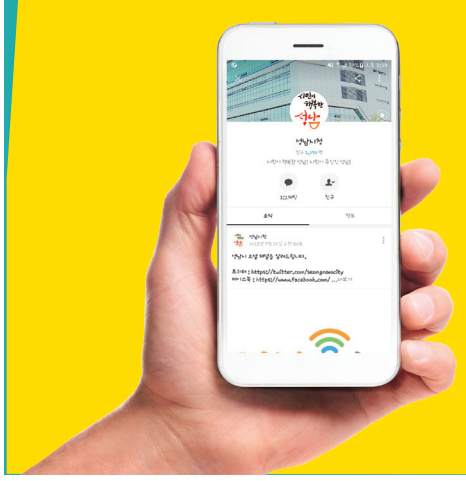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031-729-66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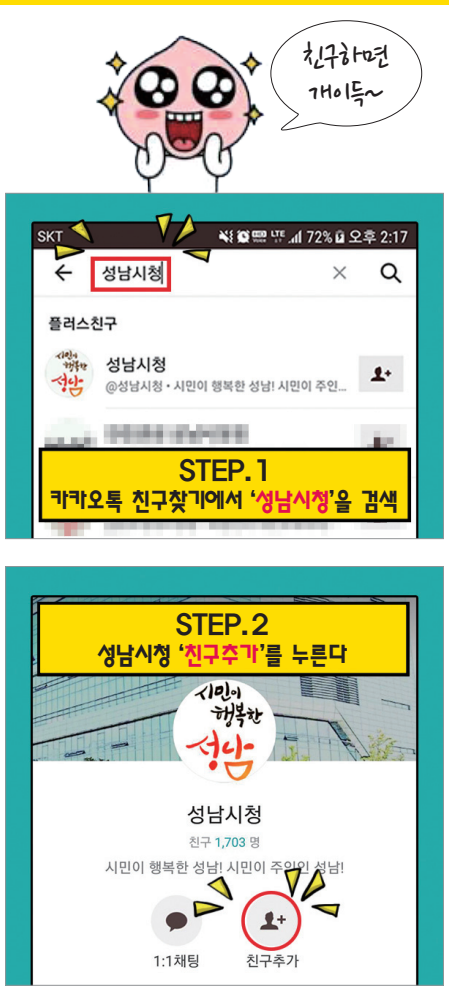


성남시민 누구나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성남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많은 행사와 축제, 빠짐없이 플러스~
긴급한 재난재해 안내도 신속하게 플러스~
모르면 손해! 알짜 정보도 남김없이 플러스~





모바일 비전성남

어플 설치하면 필요한 정보가 내 손 안으로!

▶ 설치방법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비전성남' 검색 후 설치

- **'성남안테나'**
  성남시의 교육, 공연, 행사 등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쉽게 알려 드립니다.
- **시정메모 및 현장취재**
  성남시 최신 소식과 기자단의 생생한 현장스케치가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 **Push 알림 서비스**
  새소식 업로드 시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KOR 성 남 시 www.seongnam.go.kr


1


2

꿈꾸는 마을
행복한 일상 ⑪

주민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 Green 동네

경기도 선정 Green 1호 마을 하대원동

"하대원동에 없는 것은 유해업소고요, 많은 것은 학교입니다."
중원구 하대원동 한기주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하대원동은 주민들이 어우러져 별거 아닌 것, 작은 것도 계속해서 나누고 공유하면 가치가 된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함께 하대원동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랑할 만한 사례는 많다.

길거리가 깨끗한 자원순환마을

경기도 선정 Green 1호 마을인 하대원동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 Green 동네'다. 자원순환마을이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마을을 말한다.
하대원동은 자원순환 Green사업을 위해 현장 교육과 공방 운영, 가정용 수거함 배부 등으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기존에 일반적인 현황을 나열하는 식의 실적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 10개소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분을 제작, 설치했다.
또 평범하고 밋밋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빈번했던 검단초등학교 외벽에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으로 가득 메운 벽화를 그림으로써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한 거리 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도 마을 구성원으로 한 몫

하대원동에는 검단초교, 대하초교, 영성중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하대원동 '청소년 마을학교'는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창의 인성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법을 배운다. 직접 만든 사랑의 효도 팔찌와 건강부채를 마을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면서 마을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하게 된다. 또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재 둔촌 이집 묘역을 방문, 전문가 해설을 통해 이집 선생의 일대기와 고려 말 역사 등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화분을 만들며 자원순환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Fun Fun한 경제 IQ 키우기' 프로그램에서는 '바람직한 소비생활과 용돈 관리법'이라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한다. 또 '나의 꿈 설계' 시간에는 산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를 초청,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을주민의 재능기부와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하대원동 '청소년 마을학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고 있었다.

소소한 것도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마을

이 밖에도 주민들과 청소년이 함께 빵을 만들어 마을의 홀몸노인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알뜰 벼룩시장'을 열어 물품절약 교육과 경제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알뜰 벼룩시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기증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과 주민들의 '사랑의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관내 영성중학생 2명과 테크노과학고등학생 3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오복희 간사는 "하대원동은 주민들과 화합과 소통이 잘돼서 마을의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며 만든다"며 "하대원동은 일상 속에서 소소하고 작은 것들도 서로 나누며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이라고 말했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3


4

1 불법 쓰레기 투기가 빈번했던 검단초등학교 외벽 벽화
2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분을 제작하는 주민들
3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건강부채를 마을 어르신들에게 선물
4 사랑의 제빵나눔
5 장학금 전달
6 어린이 알뜰 벼룩시장
7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창의 인성교육


5


6


7